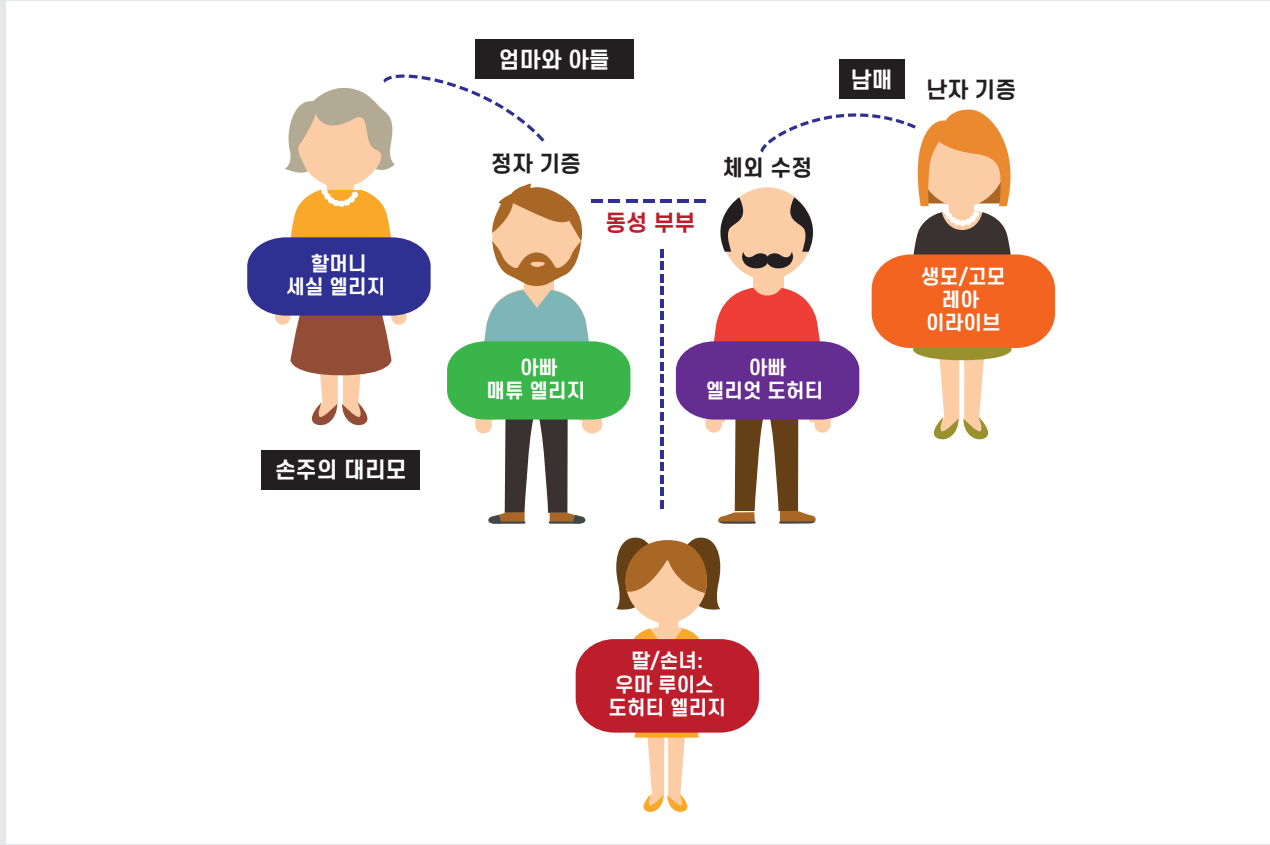


이야깃거리③

아들의 아이를 가진 엄마



출생 신고서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 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자	성명	한글	본 (한자)	성별	①남	①혼인중의 출생자	
		한자			②여	②혼인외의 출생자	
	출생 일시	년 월 일 시 분(한국 시각: 24시각제)					
	출생 장소	①자택 ②병원 ③기타		시(도) 구(군) 동(읍,면) 번지의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부모	부	성명	매튜 엘리자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세실 엘리자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부의 등록기준지						
모의 등록기준지							
혼인 신고서 자녀의 성□분을 모의 성□분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							

매튜 ▶ 엄마! 진짜 이상하네요. 엄마와 내가 우리 아가 우마의 부모로 나와있으니까. 하하하.

세실 ▶ 이상하겠지만 여기 네브라스카 주 법에 남자 기증자보다 출산을 한 대리모가 엄마라고 그러니 어떡하겠어? 그래도 난 좋다! 그리고 네 딸을 내가 낳은 건 맞잖니? 호호

매튜 ▶ 그렇죠, 그건 사실이니까. 이 신고서를 굳이 액자에 걸어 놓지만 않으면 되죠 뭐. 안 그래요? 엘리엇 그래도 괜찮겠지? 의사선생님께 자기 이름이 들어간 가짜 신고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네..

엘리엇 ▶ 신고서 따위가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 딸이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게 중요하지!

지난 2년간의 시간은 동성 커플인 매튜와 엘리엇에게는 아주 길고도 기쁜 시간이었다. 유럽에서 만나 결혼하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매튜와 엘리엇은 자녀가 갖고 싶었다. 입양과 위탁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그것보다는 자신을 닮은,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아기를 원했다. 그래서 의학의 힘을 빌려 **체외수정(IVF)**을하기로 맘을 먹었다. 체외수정을 통한 임신은 매우 복잡한 것이었지만 이 동성커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기를 가지고 싶었기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동성커플이 체외수정으로 아기를 가지려면, 우선 남자 기증자와 대리모가 필요했다. 남자 기증자를 찾는 과정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의 난자를 기증 받는 것이 꺼림칙했던 이 커플은 엘리엇의 여동생인 레아에게 난자를 기증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아직 25살의 젊지만 기혼이었던 그녀는 슬하에 자녀 1명이 있었고, 둘째를 가진 상태였기에 남편의 동의를 얻어 가족인 오빠를 위해 흔쾌히 기증하겠다고 했다.

세실 ▶ 매튜, 너희들이 아기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다. 이 엄마가 우리 아들 매튜를 위해 기꺼이 대리모가 되어 주고 싶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비록 내가 나이가 60이 넘었지만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왔잖니? 그리고 난 임신 하는 거 매우 좋아해

매튜 ▶ 하하 엄마, 폐경기가 된지 10년이 지나셨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대신 낳아 주는 건 무리에요.

의사 선생님과 면담이 있었을 때, 매튜는 장난스럽게 엄마의 제의를 의사 선생님께 전달했다. 캐롤린 의사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임신 가능 여부를 알기 위해 자궁경부암, 혈액, 콜레스테롤, 스트레스, 유방암, 초음파 등의 검사를 진행했다. 세실은 그녀의 말대로 정말로 아이를 가질 만큼 건강한 상태였고 대리모로 손색이 없었다. 그렇게 대리모도 준비가 되었다.

의사 ▶ 동생분이 기증한 난자 24개 중에 11개의 난자에 정자가 주입되었고, 그 중 7개가 성공적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착상 하기 전에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실래

요? 검사로 아이의 성별도 알 수 있어요

매튜&엘리엇▶ 성별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신처럼 아들이나 딸이냐를 선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사▶ 그렇죠. 검사 전인 지금이나 검사 후 나 어차피 하나만 선택해야 할 날이 옵니다.

매튜&엘리엇▶ 나중에 선별된 배아의 성별이 다르면 어떡하지? 우리가 딸을 원하긴 했지만 신(God) 놀이는 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럼 그 중에 성별 관계없이 가장 건강한 배아로 선택해주세요.

그렇게 우마(Uma)가 선택되고 4만불짜리 아기가 태어났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아기 우마는 아주 운 좋게 한번 만에 정상 착상을 하여 10개월간 잘 자라 할머니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할머니가 손주를 대신 낳은 사건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 이런 사건들은 주로 불임인 딸이나 아들을 위해 할머니가 직접 나서서 자녀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된 아이를 위해 대리 임신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매튜와 엘리엇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동성커플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들을 향한 엄마의 잘못된 무분별한 사랑이 우마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 우마는 앞으로 엄마라고 부를 수 없지만 그를 낳아주신 할머니와, 진짜 생모이지만 엄마라 부를 수 없는 고모와, 삼촌이지만 아빠라 불러야 되는 아빠와 함께 ‘두 아빠 가정’에서 자라야 합니다. 과연 이런 가정이 아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아이는 커갈수록 매우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또한 이 실화의 배경이 되는 미국의 네브라스카 주법에는 난자를 기증한 생모가 아닐지라도 대리모를 생모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들인 매튜와 엄마인 세실이 우마의 부모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근친상간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네브라스카 주에선 체외수정은 부분 보험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브라스카주 최초의 동성애자 하원 의원은 보험사들이 IVF와 같은 임신과 출산 관련 절차를 보험에 포함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성부부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매튜와 엘리엇과 같은 동성커플들에게까지도 그 보험의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가 아닐까요? 이는 자연임신이 불가능해서 IVF같은 의학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는 동성커플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혜택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약자이고 소수자라 주장하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움직임이 사회혼란 속에서도 동성혼을 기어코 이루어냈고 이젠 임신과 출산 관련 법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